

24일 새벽 남아프리카공화국 루스텐버그 올림피아 파크 스타디움에서 열린 한국대표팀 회복훈련에서 허정무 감독이 활짝 웃고 있다. 작은 사진은 대표팀 선수들이 운동장을 돌며 몸을 풀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유쾌한 도전은 계속
너희들을 믿는다

“탄탄한 팀도 약점은 있다... 반드시 깨주마”

우루과이전 세트피스 승부수... 빠른 역습 차단 고민

“선수들이 16강 진출이라는 큰일을 해냈지만 아직 승부는 끝나지 않았다.”
 2010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을 통해 사상 첫 원정 대회 16강 진출의 쾌거를 달성한 축구대표팀의 허정무(55) 감독이 8강 진출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강조했다.
 허정무 감독은 24일(한국시간) 새벽 루스텐버그 올림피아 파크 스타디움에서 회복훈련을 끝내고 취재진과 만나 “축하파는 한국에서 하더라도 8강전에 승부를 걸겠다”고

비장한 각오를 다졌다.
 허 감독은 16강 상대인 우루과이에 대해 “탄탄한 팀이다. 선수들의 이름은 정확히 모르겠지만 번호와 포지션을 다 외우고 있다”며 “수비수자를 충분히 늘리면서도 공수전환과 역습의 속도가 매우 빠르다. 아주 탄탄한 전력을 가진 팀이다”고 분석했다.
 그렇다면 허정무 감독은 우루과이를 어떻게 공략할 것인가. 그는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 계속 두들기다가 역습을 얻어맞느냐 끈

질기게 승부를 거느냐를 놓고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고 말했다. 조별리그 3경기에서 실점이 없는 우루과이의 완벽한 수비 조직력을 상대로 공세를 펼치다가 자칫 빠른 역습에 허를 찔릴 수도 있다는 걱정 때문이다.
 허 감독은 첫번째 승부수로 세트피스를 꼽고 있다. 두번째는 승부차기다.
 허 감독은 이날 처음으로 승부차기 훈련을 했고, 경험이 많은 이운재에 대기 특명도 내렸다. /연합뉴스



“한국은 수비에 문제”

우루과이 타바레스 감독 “겪지 못할 이유 없다” 자신감

“한국을 겪지 못할 이유가 없다.”
 오스카르 타바레스(63) 우루과이 축구 대표팀 감독은 24일(이하 한국시간) 숙소인 남아공 김벌리의 프로터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국의 전력에 대한 기본적인 분석을 마쳤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타바레스 감독은 “내가 보기로는 한국은 확고한 공격 패턴을 몇 가지 갖고 있지만 수비에 문제가 있다”며 자신감을 보였다. 하지만 그는 “한국을 분석하고 있지만 시간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한국이 전술에서 내가 본 것과는 다른 변형을 가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타바레스 감독은 “한국의 조직력이 잘 정비됐고 체력도 강하다는 느낌이 들었다”며 “충격에 반발해 저항하는 능력도 지닌 팀으로 보인다”고 경계했다. 그는 이런 분석을 바탕으로 26일 포트엘리자베스에서 열리는 남아공월드컵 16강전이 만만치 않은 경기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우루과이는 타바레스 감독이 지휘봉을 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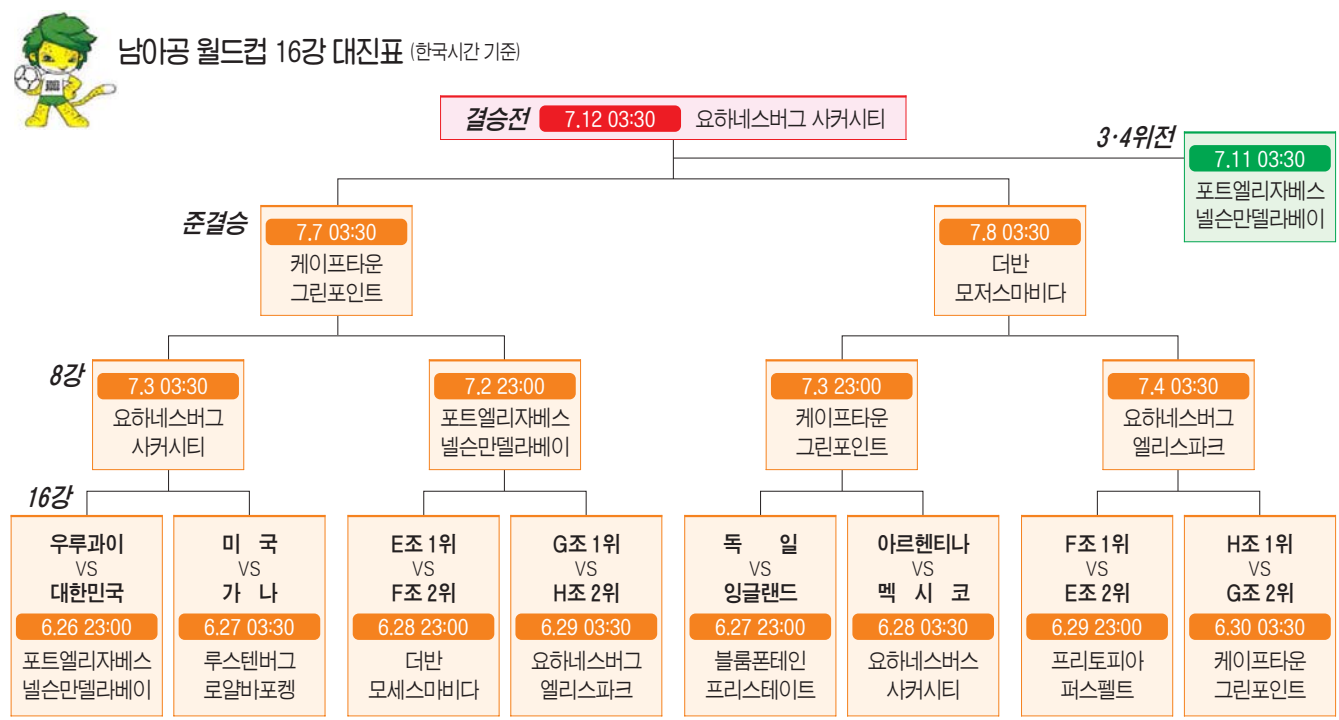
았던 1990년 이탈리아 월드컵 이후 무려 20년 만에 다시 16강에 올라 그에게 거는 기대가 남다르다. 그는 우루과이 프로축구 벨라비스타, 우루과이 20세 이하 대표팀, 아르헨티나 보카 주니어스, 이탈리아 AC 밀란 등을 맡아 지도하다가 2006년 독일 월드컵이 끝나고 나서 국가대표 감독에 재선임됐다. 말수가 적고 탁월한 웅변술과 전술 운용 능력을 자랑해 ‘그라운드’의 마에스트로’로 불리고 있다. /연합뉴스

이운재 8강티켓 비밀병기?

우루과이전 승부차기 대비 대기 특명

‘승부차기 방어의 달인’ 이운재(37·수원·사진)가 2010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 8강 진출에 도전하는 태극전사의 비밀병기로 나선다.
 24일(한국시간) 새벽 남아프리카공화국 루스텐버그 올림피아 파크 스타디움에서 재미있는 광경이 연출됐다. 전날 나이지리아와 본선 조별리그 3차전을 마치고 16강 진출을 확정된 대표팀은 가벼운 분위기에서 회복훈련을 치렀다.
 1시간가량 진행된 회복훈련의 마지막 부분에서 허정무 감독은 박주영(모나코)과 염기훈(수원), 이영표(알 힐랄), 이정수(가시마), 차두리(프라이부르크), 김정우(광주상무), 기성용(셀틱), 조용형(제주) 등을 페널티지역에 불러세웠다. 그리고 골키퍼 훈련을 하던 이운재를 골대 앞에 세우고 ‘깜짝’ 승부차기 훈련을 했다.
 우루과이와 8강 진출의 운명을 건 한판

대결이 승부차기에서 결판이 날 수도 있어서다.
 특이한 것은 조별리그 3경기에서 모두 선발로 나선 정성룡(성남) 대신 이운재를 세웠다는 점이다. 이운재는 자타가 공인하는 승부차기 방어의 달인이다. 지난 2002년 한일월드컵 때 8강에서 스페인과 벌인 승부차기를 승리로 이끌었던 이운재는 대표팀은 물론 K-리그에서도 승부차기만큼은 놓치지 않는 집중력을 발휘해왔다.
 이운재는 이날 훈련에서도 박주영과 염기훈, 기성용의 슈트를 막아내면서 ‘거미손’의 명성을 증명해 보였다.
 허정무 감독은 “경기를 치르다 보면 승부차기도 나올 수 있는 만큼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다”며 우루과이와 경기가 무승부로 끝나 승부차기로 들어간다면 이운재를 교체로 내세우겠다는 복안을 내비쳤다. /연합뉴스



美·잉글랜드·獨·가나도 16강 축제 합류

미국과 잉글랜드가 천신만고 끝에 16강에 올랐다. 독일과 가나도 가가스로 16강 축제에 합류했다.
 미국은 24일(한국시간) 프리토리아 로프투스 페르스켈스 경기장에서 열린 남아공월드컵 C조 조별리그 최종 3차전에서 경기 종료 직전 랜던 도너번(LA 갤럭시)이 천금같은 결승골을 터뜨려 알제리를 1-0으로 꺾었다.
 이로써 1승2무로 승점 5를 확보한 미국은 잉글랜드와 타이를 이뤘지만 다득점에서 앞

서 조 1위로 16강에 올랐다.
 우승후보로 꼽혔던 잉글랜드도 슬로베니아를 1-0으로 누르고 16강에 합류했다.
 잉글랜드는 전반 23분 제메인 디포(토트넘)가 터뜨린 결승골을 끝까지 지켜 이번 대회 첫 승을 올렸다.
 탈락 위기에 몰렸던 ‘전차군단’ 독일도 이날 요하네스버그의 사커시티 스타디움에서 열린 남아공월드컵 D조 조별리그 3차전에서 메슈트 외집(브레멘)의 결승골에 힘입어 절그러운 가나를 1-0으로 물리치고, D조 1

위로 16강에 올랐다.
 벨스프리트 음블렐라 경기장에서 벌어진 호주와 세르비아의 3차전에서는 호주가 팀 케이힐(에버턴)과 브렛 홀먼(아제트)이 연속 골을 터뜨려 마르코 판텔리치(아약스)가 한 골을 만회한 세르비아를 2-1로 꺾었다.
 이에 따라 가나와 호주는 1승1무1패로 똑같이 승점 4를 기록했으나 가나가 골득실에서 앞서 조 2위로, 아프리카 팀 중 유일하게 16강에 올랐다. /연합뉴스

좋은 보청기를 쓰십시오

www.kitf.com

국제보청기

본점 (062) 227-9940
 수원점 (031) 752-9940
 총장점 (062) 227-9970

목포점 (061) 262-9200
 리산점 (063) 851-2422